

베트남

제조업 중심으로 고도 성장세 지속

제조업 성장 확산과 함께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

베트남의 성장률은 2003년에 전년의 7%보다 높은 7.2%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금년 1분기 성장률도 7.1%에 이르는 등 고도 성장세가 지속되어 금년 성장률이 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장은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제조업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작년에 10.3%의 성장을 보여 GDP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제조업 총생산은 작년 중 16%의 증가를 보였으며, 제조업의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이 18.7%, 외국인투자 부문이 18.3%로 성장을 이끌었다. 반면에 GDP의 40%를 차지하는 제조업 국영부문은 성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으로서 앞으로도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체들은 종래에는 주로 호치민 중심의 남부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북부 지역의 Vinh Phuc, Hanoi, Ha Yay, Hai Duong, Haiphong 등에서 자동차, 전자,

<표 1>

주요 도시·성별 외국인직접투자 허가액(2003년)

도 시 명	투자 건수	투자 금액(백만 달러)
Dong Nai	103	345
Ho Chi Minh City 직할시	190	235
Binh Duong	139	234
Ba Ria-Vung Tau	18	157
Long An	24	135
Hanoi 직할시	67	118

자료: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공산품 등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는 여전히 인프라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해 있는 기존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원유 부문은 투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량과 수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작년 10월 생산을 개시한 수투덴(Su Tu Den) 유전에서는 일일 9.5만 배럴이 생산되고 있고, 최대 유전인 백호(Bach Ho) 유전에서는 일일 25만 배럴이 생산되고 있다. 수출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정유시설을 갖추지 못해 산유량을 모두 수출하고 석유정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들어 전력, 통신, 수송망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제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외국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분야에의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밀레니엄 개발계획에 대한 최근의 성과보고서에서 인프라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2000년 이후 약 30만 가구가 빈곤에서 탈피하였으며 이 결과 빈곤율이 매년 2% 포인트씩 낮아졌다. 둘째, 최근 3년간 4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이 2001년의 6.3%에서 2003년에는 5.8%로 낮아졌다. 셋째, 교육이 확대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유아사망율이 낮아졌다.

수출호조와 함께 외국인투자도 점차 회복세

수출이 섬유류, 원유 등을 중심으로 작년에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원유는 2002년 대비 15%가 증가한 38억 달러, 섬유·의류는 32%가 증가한 36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두 분야는 전체 수출의 37%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커피, 고무, 전자제품 등의 수출도 약 4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출증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수출증가와 봉제, 신발류 등 수출품목의 품질경쟁력 향상에 기인하고 있다. 반면에 농산물 수출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태국-중국간 농산물 관련 무역협정의 체결로 대 중국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수입도 자본재 및 원자재 수요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계·장비, 전자제품, 컴퓨터 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는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2004년의 적자규모는 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품수지 적자 확대에 베트남의 경상수지도 적자규모가 커지고는 있으나, 외국인투자 유입과 이국간 및 다자간 국제원조가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투자 관계법의 최근 개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허용분야 확대와 제조업 및 유전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장려 등에 힘입어 2003년 외국인투자 허가액은 신규투자 19억 달러를 포함하여 31억 달러로 전년보다 15%가 증가하였다.

특히 주의를 끄는 것은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2001년 12월에 베트남의회의 비준을 통과한 뒤 양국간 무역 및 미국의 대 베트남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표 2>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e	2004f
경제성장률	6.8	6.9	7.0	7.2	7.5
소비자물가상승률	-1.7	-0.4	3.8	3.1	5.8
재정수지	-2.8	-2.9	-1.8	-2.5	-3.6
경상수지	1,106	682	-600	-1,899	-2,200
수출	14,448	15,027	17,706	19,881	23,200
수입	14,073	14,546	17,760	22,463	25,900
환율(달러당 Dong)	14,167	14,725	15,279	15,509	15,936

자료: EIU, *Country Reports*, 2004. 4.

해 대미 수출은 신발·의류, 수산물 중심
으로 크게 증가해 베트남 총수출의 15%에
이르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섬유·의류 무역협정 체결로 대미
수출시 쿼터가 적용되면서 외국인투자 기업을
포함한 관련 업체의 타격이 예상되며, 최근
대미 수산물수출 관련 덤핑분쟁도 향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은 WTO에 가입을 신청한
상태이며, 현재 EU, 미국, 일본 등 관련국
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2005~06년경
정식가입이 예상되며 이 경우 대외무역의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중 호】